

간호사 채용을 위한 간호관리자의 OSCE 개발

한미현^{1*}, 최주순², 박석건³

¹해전대학교, 간호학과, ²단국대학교 간호부, ³단국대학교 의과대학

Development of OSCE by Nurse Managers of One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 for Skill Test of Nurse Recruitment Process.

Mi-Hyun Han^{1*}, Joo-Soon Choi² and Seok Gun Park³

¹Department of Nursing, Hyejeon College

²Dankook University Hospital

³Dankook University Medical College

요 약 실무능력을 갖춘 신규간호사를 선발하려면 실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기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 간호사 채용 시 실기능력을 평가하는 병원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 채용 시의 실기능력 테스트 방법으로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구조화된 객관적 임상시험, 이하 OSCE)를 하기로 정하고, 준비과정으로 일개 대학 병원의 간호관리자들로 하여금 직접 OSCE 모듈을 개발하고 OSCE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간호관리자 20명 중 16명이 참여하여, 7개의 OSCE 모듈을 직접 개발하였고, 이 모듈을 가지고 간호과 3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OSCE를 실시하였다. 각 모듈의 평가자간 신뢰도는 한 모듈을 제외하고는 모두 $r=0.8$ 이상이었다. 7점 척도로 측정된 모듈 개발 전후의 자신감은 3.93에서 6.64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간호관리자들은 OSCE 모듈의 개발 및 시험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신규간호사를 선발하는 데 OSCE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개발 경험은 간호사 채용 시 실기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타 병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o recruit nurses with skills, the hospital must evaluate the skills of the applicants. But objective evaluation of the skills is a difficult. Many hospitals are using written examination or oral test only and are not testing the nursing skills directly when they recruit new nurses.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is a method developed for the evaluation of clinical skills objectively. In this study, 16/20 nurse managers of one university-affiliate hospital were assembled for the project of developing 7 OSCE modules by themselves, and then they ran OSCE using those modules for 40 nursing students. They scored nursing skills of the students using checklists they designed. The whole process was proceeded phase by phase using step-wise approach model. The project was successful; inter-personal consistency of the scores were high; nurse managers became confident in objective skill evaluation; subjective responses for this project were favorable. The hospital adopted OSCE in recruitment process thereafter. This experience might be applied to other hospitals who want to recruit nurses with skills.

Key Words :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nursing skill, clinical competency, skill test, employment

본 논문은 2010년도 해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Mi-Hyun Han

Tel: +82-41-630-5290 e-mail: hmihyun@hj.ac.kr

접수일 12년 05월 18일

수정일 12년 06월 05일

게재확정일 12년 06월 07일

1. 서론

최근 양질의 간호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수행의 숙련성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1].

간호대학을 졸업한 신규간호사들은 학업과 실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해서 그 자격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상자 간호에 필요한 기술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로 임상에 나오게 된다. 김혜숙(1995), 김창희 등(2000)은 정규 간호교육을 마치고 신규간호사로 임상에 처음 나왔을 때 실제 대상자에게 독자적으로 간호행위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2,3]. 한상숙 등(2009)은 병원의 규모나 특성, 간호단위의 목표 등에 따라 간호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데 비해 대학에서의 임상실습교육이 많은 부분에서 관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규간호사들은 이론적 기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을 실제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4]. 한상숙 등(2009), 유옥임(2000)에 따르면 신규간호사들은 졸업 후 병원 현장의 실무에 대한 높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간호업무에서 요구되는 직무지식 및 기술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4,5].

이에 병원에서는 신규 간호사를 채용한 후에 별도의 교육을 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3,6,7,8]. 그러므로 대학에서 학생들의 실기교육 및 평가를 강화해야할 뿐 아니라, 신규간호사의 채용에 있어서도 실기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병원 중 신규간호사 선발 시 실기능력을 평가하는 병원은 거의 없다. 간호사 채용 시 실기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선발한다면 신규간호사들의 임상적응 기간을 줄이고, 환자들에게 질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9]. 또한 병원에서 신규간호사 채용 시 실기능력을 평가하면, 간호대학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실기교육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기술을 평가하는 방법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 간호기술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들의 상태가 모두 다르고 임상현장이 항상 변화하므로, 이런 평가 방법은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상 상황을 모방하여 미리 상황을 설계해 놓고(구조화), 어떤 행동들을 평가할 것인지 항목별로 채점기준을 정한 체크리스트를 미리 만들어서(객관화) 학생들을 평가하는 구조화된 객관적 임상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이 활용되고 있다. 좀 더 복잡한 상황을 평가하는

CPX(Clinical Practice Examination)가 있으며, 환자를 연기하는 모의환자(Standard Patient)를 투입하기도 한다.

국내 간호계에서는 2000년도부터 OSCE가 활용되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OSCE의 교육적 효과 [10,11], 간호학생의 실무능력 평가[12]와 간호사의 실무능력 평가에 관한 OSCE를 적용한 연구[13]등이 있다. 정명숙(2008)은 간호사에게 OSCE를 실시한 후, OSCE 점수와 자기효능감, 실무능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 하였고, 우수한 신입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시점에 OSCE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하였다[14]. 그러나 신규 간호사를 선발에 OSCE를 적용한 연구는 아직 없다.

OSCE를 위한 모듈을 개발하거나, OSCE를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져서 시작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신규간호사 채용 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기능력을 평가하기를 원해도 바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연구자는 C시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간호관리자들로 하여금 OSCE 모듈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 모듈을 가지고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실기시험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개발된 모듈과 시험 운영의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간호관리자들이 OSCE를 이용하여 간호수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신규간호사 채용에 실기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대상 및 방법

2.1.1 대상

OSCE 모듈개발자 및 평가자는 충남 소재 일개 대학병원의 전체 간호관리자 20명 중 16명이 참여하였다. 참여한 관리자는 팀장1명, 수간호사 12명, 주임간호사 3명이었다. 관리자들의 근무 부서는 외과계 7명, 내과계 3명, 중환자실 2명, 간호부 2명, 응급실 1명, 중앙공급실 1명이었다.

수험자는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 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1.2 모듈개발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네 차례의 미팅을 통해서 간호수기 모듈개발을 진행하였다. 사전 준비 단계로 OSCE 소개와 OSCE 적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호사와 간호관리자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다. 이후에 근무 스케줄

이 일정한 간호관리자 16명이 모여서 모듈의 주제를 결정하였다. 선정된 모듈 주제는 간호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간호수기로서 간호관리자들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였다. 선정된 간호수기는 혈압측정, 무균술, 항생제 피부반응검사, 항생제 주사 준비, 인슐린 주사 준비, 간호정보조사, 산소요법이였다.

각 모듈은 간호관리자 2인이 맡아서 개발하였으며 단계별(수행절차 분석→수행절차 합의→체크리스트 초안 작성→모의테스트 후 체크리스트 확정)로 진행하였다. 혈압측정 모듈에서는 혈압 측정 수기를 평가하는 것 이외에도 2인용 청진기를 사용하여 수험자가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지를 직접 확인하였다. 혈압측정 모듈과 간호정보조사 모듈에는 각각 한 명씩 모의환자를 두기로 하였다.

2.1.3 OSCE 실시

개발한 모듈을 적용하여 진료가 끝난 뒤에 병원 외래 진료실을 이용하여 OSCE를 실시하였다. 각 OSCE 모듈마다 2명의 모듈개발자가 직접 평가를 하였다. 수험자는 일개 간호대학 3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험 시간은 한 모듈 당 3분을 배정하였고 모듈 간 이동시간 및 문제를 읽는 시간은 30초로 하였다. 40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7개의 간호수기를 평가하는데 총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1.4 모듈개발 및 OSCE 실시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OSCE 모듈개발 및 실시에 참여한 간호관리자를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모듈개발 전·후에 간호수기에 대한 자신감을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자신감 정도는 7점 척도로 '1점은 수기에 대해 전혀 모른다. 2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점은 잘 알고 있다. 4점은 간호수기를 수행할 수 있다. 5점은 다른 사람에게 시범을 보여주며 교육할 수 있다. 6점은 수기를 평가할 수 있다. 7점은 모듈개발하지 않은 다른 간호수기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OSCE 모듈개발 및 실시에 참여한 것에 대한 느낌 및 의견을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하였다.

2.2 자료분석

통계분석은 개발된 모듈의 신뢰성을 보기 위해서 Spearman의 순위 상관계수로 각 모듈 별로 평가자 간의 채점 일치도를 구하였다. 그리고 모듈을 개발하고 시험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듈개발 활동 전·후에 간호관

리자들의 간호수기에 대한 자신감의 변화를 대응표본 t-test로 확인하였다.

3. 결과

3.1 OSCE 모듈개발 : 증례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평가기준

전체 모임 또는 모듈별 소그룹 모임의 연구 및 토론과정을 통해 7개의 간호수기에 대해 실기평가를 위한 증례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및 평가기준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채점자 간의 주관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관찰 가능한 행동만 체크하도록 하였다. 각 모듈의 체크리스트 항목은 평균 10항목 이내였다.

3.2 각 모듈별 평가자 2인의 채점 일치도

인슐린 주사 준비와 간호정보조사는 2명의 평가자가 완전한 채점 일치치를 보였으며 항생제 반응검사를 제외하고 모두 $r=0.8$ 이상의 일치도를 보였다[표 1].

[표 1] 채점 일치도

[Table 1] Agreement of scoring

모듈	R
혈압측정	0.86224
무균술	0.89952
항생제 피부반응검사	0.53078
항생제 주사 준비	0.96617
인슐린 주사 준비	1.00000
간호정보조사	1.00000
산소요법	0.82914

(R 간호관리자 간의 순위상관계수)

3.3 간호관리자의 모듈개발 및 OSCE 실시 효과

3.3.1 모듈개발 후 간호수기 평가에 대한 자신감 향상

간호관리자들은 OSCE 모듈을 개발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 간호수기 및 평가에 대한 자신감이 증진되었다.

모듈개발 전 평균 3.93점(수기를 수행할 수 있다)에서 모듈개발 활동 후에는 평균 6.64점(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감이 증진되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모듈을 개발했던 간호수기 뿐만 아니라 다른 간호수기에 대해서도 모듈개발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였다[표2].

[표 2] 간호수기 평가에 대한 자신감
[Table 2] Confidence in nursing skill test

집단	평균±표준 편차	자 유 도	t 값	p 값 (유의확률, 양쪽)
간호 관리자 (n=14)	사전 3.93±1.38 사후 6.64±0.93	13	-8.919	0.000

3.3.2 OSCE 모듈개발 및 실시 경험에 대한 반응

OSCE 모듈개발 및 평가에 참여한 간호관리자들의 소감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으며, 간호수기 평가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학생 실습교육과 간호사 지도에 활용하겠다고 하였다[표3].

[표 3] OSCE 모듈개발 및 실시에 대한 반응
[Table 3] Subjective responses to OSCE module developing activity

항목	내용
간호 관리자 자기 진단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 과학적 간호에 접근한 경험이었다. 간호행위의 표준을 재확인하였다. 간단한 수기도 세세한 부분까지 확실히 알게 된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습관적으로 수행하던 수기를 재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간호수기 실기평가의 중요성 알게 되었다. 체크리스트는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수험자 에 대한 진단	학생들 수기수행능력 미흡하다. 매우 기본적인 수기인데 학생들이 예상 밖으로 잘 못하고 있다. 실습학생을 올바로 진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험실시 전에 수험자에게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간호정보조사). 학생들이 수기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OSCE 시행에 대한 자신감	이 경험 통해서 신규간호사 평가도 가능하다. 학생 평가 경험을 간호사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객관적인 평가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추후 모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내가 개발한 모듈이외에 다른 모듈의 표준과 중요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측정 평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명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현 상태,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보충하고 교육할 수 있다. 학생 및 신규간호사 교육 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의 활용 계획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학생실습지도에서 학생들에게 간호수기를 정확하게 교육해야겠다. 학생들에게 간호수기 경험해보는 기회를 많이 주겠다.

	이 경험이 앞으로 교육을 제공의 방향을 설정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신규간호사 병동 배치 전에 테스트해서 환자간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신규간호사 교육 및 지침서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다른 간호수기도 평가 경험을 해보면 후배를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여러 개의 모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를 하면 좋겠다. 대상자 경력에 따라 난이도를 다양하게 한 모듈개발이 필요하다. (통합적인 문제 해결 접근도 가능)
기타	신규간호사 입장이 이해된다. 간호행위수행과 그에 따른 불안이 이해가 된다. 실제 평가를 해보니 모듈개발과정에서의 어려웠던 부분들이 해결된다.

4. 논의

병원에서 신규간호사를 채용하여 업무에 적응하도록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조기 이직을 하는 사례도 있다. 지은옥(2009)은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은 낮은 간호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15]. 윤숙희(2002)는 신규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으로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업무수행의 막막함 등을 제시하였다[16]. 또 황선영 등(2002)은 신규간호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업무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자존감 저하를 느낀다고 하였다[17].

이렇게 기술부족이 부적응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만약 간호수기 수행 능력을 갖춘 신규간호사를 선발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보다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응기간도 줄이고, 중도에 이직하는 비율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Miller(1990)는 지식, 태도, 임상 수기 능력은 각각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18]. 전통적인 형태인 필기시험이나 구술시험으로 실기능력을 직접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상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OSCE가 있다. OSCE는 구조화된 객관적 임상수행 평가도구로서 1975년 Harden 등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으며[19] 의학, 간호학 분야에서 학생들의 임상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OSCE 모듈은 보통 한 두 사람의 전문가가 개발을 하고, 개발이 된 모듈을 가지고 다른 사람(채점자)들을 동원하여 시험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별도로 OSCE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관리자들이 직접 OSCE 모듈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간호관리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간호 전문가 일 뿐 아니라, 간호사들의 술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약간의 체계적인 도움만 있다면, 간호관리자들이 OSCE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신규 간호사의 실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간호사의 수기 능력을 중요시한 간호부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에 의해, 간호관리자들이 OSCE 모듈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듈을 가지고 실제로 OSCE를 시행해 보도록 하는 일련의 시도를 하게 되었다.

모듈개발과정은 한미현(2005)에서 고안한 모델에 따라 1단계(도입단계): OSCE 소개 및 적용에 대한 강의, 2단계: 모듈주제 결정 및 각 간호수기의 절차 분석, 3단계: 간호수기 수행 절차에 대한 합의, 4단계: 간호수기 수행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초안 작성, 5단계: 모의 테스트 후 체크리스트 확정, 6단계: OSCE 시행계획 단계로 진행하였다[20].

이렇게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 이유는 간호관리자들이 별도로 OSCE 모듈을 개발하고 OSCE 시험을 운영하는 방법을 교육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간호수기에 대한 현장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Windrim 등(2004)에 의하면 전문가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단계적으로 능력을 쌓아 올려 나가지만, 일단 전문가가 된 후에는 불필요한 중간단계는 생략하고 최단거리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초심자가 꼭 거쳐야 되는 단계를 자기도 모르게 생략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21]. 따라서 OSCE 모듈을 개발하는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를 거치게 하고, 간호수기를 관찰 가능한 여러 개의 단일한 행동들로 분해하여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익숙하게 알고 있던 임상간호수기 수행 행동을 분해한 후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다시 구성하여 객관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는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했으며, 만들어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서로 모의 테스트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채점자간에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한미현(2005)은 이미 이러한 단계적 접근 모델을 이용하여, 학생들도 모듈을 개발하여 후배 학생에게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OSCE 모듈 개발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20]. 이후 허명행 등(2006)과 이지은(2010)은 이 모듈 개발과정을 다른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학생들에 의한 OSCE 모듈개발이 가능하며,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22,23].

Christorper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OSCE는 채점자가 다양해도 같은 성적이 나온다[24]. 이것은 OSCE 모듈 개발을 하면서 시나리오와 체크리스트, 채점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들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개발된 모듈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볼 때는 2명의 평가자를 두어 두 사람 간의 채점 일치도를 확인했는데, 한 개의 모듈을 제외하고는 모두 $r=0.8$ 이상의 일치도를 보였다. OSCE 경험이 없는 간호관리자들이 실기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결과에서 보인 것처럼 간호수기 평가에 대한 자신감을 7단계의 척도로 설문조사 하였을 때 자신감 점수가 3.93점(수기를 수행할 수 있다)에서 6.64점(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으로 자신감이 유의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주관적인 응답에서도 “OSCE 모듈 개발경험이 매우 유익했고, 이 경험을 학생과 간호사 교육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현재 실습을 지도하고 있는 학생의 수기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게 되었고, 학생들에게 실습 중에 간호수기 수행의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응답 등이 있었다.

성인학습이론에 따르면 학습 대상자의 기존 경험과 신조를 고려한 교육을 했을 때 교육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25]. 간호관리자들이 모두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정보를 모으고 서로 간의 합의를 거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기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신규간호사가 수행하는 기본적인 간호수기에 대하여 간호관리자가 직접 OSCE 모듈을 개발하고, 평가자가 되어 주도적으로 실기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대상은 일개 전문대학 간호과 3학년 학생 40명이었다. 평가자 간의 채점 일치도와 OSCE 모듈개발 경험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OSCE 경험이 없는 간호관리자들이 신규간호사에게 필요한 핵심 간호수기 모듈을 개발하였다.
- 2) 간호관리자가 개발한 모듈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기평가를 실시하였다.
- 3) 각 모듈별로 두 명의 평가자 간 채점 일치도가 유의하였다.
- 4) OSCE 모듈개발과 실제 운영을 경험한 간호관리자

는 간호수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 5) 간호관리자가 OSCE 모듈을 개발하고 간호수기 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매우 유익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학생과 간호사 교육에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일개 대학병원에서 OSCE 경험이 없는 간호관리자가 단계별 접근 모델을 이용하여 통해서 OSCE 모듈을 개발할 수 있었고, 간호수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신규간호사 채용에 실기 평가 실시 가능성을 열었다. 이 병원에서는 이후 간호관리자들이 개발한 OSCE 모듈로 신규간호사 채용에서 실기능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계속하고 있다.

References

- [1] Jung Hee Song, Myeong Ja Moon, "Frequency and Importance of Nursing Practice between Novice Nurses and Student Nurses", J Korean Acad Funda Nurs, Vol 15, No 1, pp. 22-33, 2008.
- [2] Hae Suk Kim, "A Study on the action and Performance of New Nursing Staff" Unpublished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1995.
- [3] Chang Hee Kim, Hae Suk Kim, Hae Sung Cho, Soon Ohk Lee, Hyeong Mi Ham, Mi Mi Park, "The Effect of Preceptorship on OJT(ON the Job Training) of New Nurses", J Korean Academic Adult Nurs, Vol 12, No 4, pp. 546-559, 2000.
- [4] Sang Sook Han, In Soon Sohn, Nam Eun Kim, "New Nurse Turnover Intention and Influencing Factor", J Korean Acad Nurs, Vol 39, No 6, pp. 878-887, 2009.
- [5] Og-Im Yoo, "Study on the Stress and the Satisfaction with the Orientation Program of New Nurses", Unpublished master thesis, Kyung Hee University, 2000.
- [6] Cho Ja Kim, Jee Won Park, "An Exploratory Study of Role Adaptation of Newly Employed Nurses", J Korean Acad Nurs, Vol 20, No 1, pp. 50-60, 1990.
- [7] Ock Su You, Jung Ho Park, "The Effect of Indoctrination Program on Role Transition of New Graduate Nurses", J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Vol 4, No 1, pp. 129-150, 1998.
- [8] Soo-Youn Park, Ju-Sung Kim, Myung-Hee Kim, "A Study of the Burden of Preceptors", J Korean Acad Funda Nurs, Vol 10, No 1, pp. 37-46, 2003.
- [9] Young Soon Byun,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new graduates' ability of clinical performance", Nursing Science, Vol 10, No 1, pp. 31-42, 1998.
- [10] Moon Sook Yoo, Il Young Yoo, "Effect of OSCE method on performance of clinical skills of Students in fundamentals of nursing course", J Korean Acad Nurs, Vol 33, No 2, pp. 228-235, 2003.
- [11] Moon Sook Yoo, Il Young Yoo, Youn Jung Son, "Effect of OSCE method on Clinical Skills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 9, No 1, pp. 73-80, 2003.
- [12] Ki Sun Kang, Young A Song, Eun Young Choi, "Clinical Application of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OSCE) fo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 15, No 2, pp. 175-182, 2009.
- [13] Namyoun Cheung, Youngshin Song, "Clinical Application of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for Novice Nurses", J Korean Acad Funda Nurs, Vol 13, No 3, pp. 334-342, 2006.
- [14] Myung Sook Jung, "A Study on the Correlation among new Graduate Nurses' OSCE Results, Self-efficacy and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Kyun Kwan University, 2008.
- [15] Eun Ok Ji, "A Study on Field Adaptation of New Nurses",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2009.
- [16] Sook Hee Yoon, "A Study on New Graduate Nurses' Clinical Experiences of Adaptation", J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Vol 8, No 1, pp. 55-72, 2002.
- [17] Seon Young hwang, Eun Joo Lee, Duk Mi Na, Gwang Sook Lee, Gwang Soon Sun, Chung Sook Lee, "The Clinical Experiences of Newly-qualified nurses", J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Vol 8, No 2, pp. 261-271, 2002.
- [18] Miller GE, "The assessment of clinical skill/competence/performance", Acad Med, Vol 65, No 9, pp. s63-s67, 1990.
- [19] Harden RM, Stevenson M, Downie WW, Wilson GM, "Assessment of clinical competence using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BMJ, Vol 1, pp. 447-451, 1975.
- [20] Mi-Hyun Han, "OSCE Module Development by students and it's Educational Eff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2005.
- [21] Windrim R, Thomas J, Rittenberg D, Bodley J, Allen V, Byrne N, "Perceived educational benefits of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OSC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by resident learners", J Obstet Gynecol Can, Vol 26, No 9, pp. 815-818, 2004.

- [22] Myung-Haeng Hur, Hee-young Oh, Hye-Young Ahn, Mi-Hyun Han, Mi-ran Eom, “The Effectiveness of OSCE Module Development on Outcomes of Clinical Skill Education”, Annual Bulletin of The Bum-Suk Academic Scholarship Foundation, Vol 10, pp. 75-87. 2006.
- [23] Ji-Eun Lee,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Suction Utilizing the OSCE Module Development Activit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Eulji University, 2010.
- [24] Christopher JD, Peter HH, Gordon HF, John SB, “The Effect of Examiner Background, Station Organization, and Time of Exam on OSCE Scores Assessing Undergraduate Medical Students' Physical Examination Skills”, Acad Med, Vol 75, No 10, pp. S96-S98. 2000.
- [25] Cheryle MK, “Investing in the future of nursing education : A cry for action”, Nurs Educ Perspect, Vol 23, No 1, pp. 24-29. 2002.

박 석 건(Seok Gun Park)

[정회원]



- 1981년 2월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 1991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예방의학 석사
- 1995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예방의학 박사
- 1994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관심분야>
 핵의학, 의학교육, 의료윤리

한 미 현(Mi-Hyun Han)

[정회원]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사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05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해전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간호수기평가(OSCE), 간호윤리

최 주 순(Joo-Soon Choi)

[정회원]



- 1974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사
- 1992년 2월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간호행정 석사
- 2002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12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 1994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병원 간호부장

<관심분야>
 간호행정, 간호활동 분석